



협의회-제주의소리, 사회공헌 협약

'아름다운 기부와 나눔 UCC 공모전' 공동 개최

'기부와 나눔'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의소리가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와 제주의소리(대표이사 고홍철)는 7월 19일 사회복지협의회 회관에서 사회공헌활동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한 회장과 이재홍 제주의소리 이사, 양광호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원장, 고경윤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윤보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조성태 아라중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승희 아라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협력하고 제주지역에 기부와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첫 발걸음으로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아름다운 기부와 나눔 UCC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또 제주의소리 홈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코너를 별도로 마련, 푸드마켓 등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내용 등을 홍보한다.

이동한 회장은 "제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제주의소리와 손을 잡게 돼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기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며 "제주

의 화합과 지역사회의 후미진 곳을 밝게 만드는 등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이사는 "제주의소리가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데 감사한다"면서 "UCC 공모전에 그치지 않고 제주의소리가 사회복지영역에 소속돼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많은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의소리는 2008년부터 참가비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아름다운 제주국제마라톤대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기부와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열리는 국내 최초 기부마라톤으로 올해도 10월 2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마라톤대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귀포 '행복나눔푸드마켓' 개장

서귀포 지역에도 푸드마켓이 문을 열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국비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서귀포시 서귀동에 165㎡ 규모의 매장을 마련해 7월 6일 '행복나눔푸드마켓'을 개장,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푸드마켓은 기부받은 물품을 이용자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해 가져갈 수 있는 편의점 형태의 공간으로, 기부받은 물품을 일방적으로 나눠주기만 하던 푸드뱅크보다 한단계 진화한 서비스 형태이다.

푸드마켓에는 쌀, 라면, 양념류, 식재료, 육류, 기타 생필품 등이 갖춰져 있으며, 월 1회 3가지 품목을 무상으로 선택해 가져갈 수 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권자 증명서

와 신분증을 가지고 푸드마켓을 직접 방문하면 이용자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장 이후 200여명이 푸드마켓을 방문했으며,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푸드마켓 운영에 도움을 줄 기업과 시민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으며, 금품·물품 후원 모두 가능하다. 후원자들에게는 후원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지원된다.

문의=733-1388.

지면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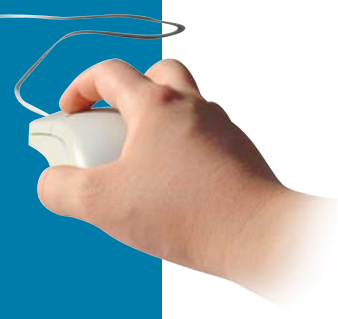
- 종합 2·3면
사회복지대체 인력은행 운영
시설 탐방가죽사랑상담소
- 사회복지소식 4·5면
충증장애인 건강관리프로그램
소식·알림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성년후견제도 부모교육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인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그것이 별거 아닌것 같으면서도 참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구나'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기획을 해야 하는데 자료도 변변치 않고 조언자도 없고... 기획, 디자인, 출력, 제판, 인쇄... 이 모든 과정을 저희 선진인쇄사에서는 One-Stop System 고객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인쇄 · 출판의 지존심



선진인쇄사
도서출판 열림문화



대표 강규진
(제주도인쇄조합 이사장)

• 전화 : 064)757-4437, 755-4856 • 팩스 : 064)721-4855

사회복지 대체인력은행 본격 운영

10일까지 신청 접수...보육교사·사회복지사 등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 분야 대체인력은행을 본격 운영한다.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신과 출산 등에 따른 육아휴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회복지시설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인력은행 형태로 운영된다.

신청대상은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간호사, 조리사 등이다. 오는 10일까지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과 함께 대체인력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가 지난 6

월 노인·장애인·보육·청소년시설 등 사회복지분야 시설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수요조사 실시한 결과 100여개 시설에서 145명의 육아휴직에 따른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보육교사가 109명으로 제일 많았고, 조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13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주도는 이들 분야에서 대체인력근무 희망자를 모집, 대체인력은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체인력 신청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 우선 추천되며, 시설운영자와 직접 근무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인 협상 후 근무여부를 본인이 결정하게 된다.

또 근무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더라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으로 추천될 수 있어 소득보장과 함께 경력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 종사자 처우개선은 물론 직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장기육아휴직(6월~12월)을 희망했으나 직장내부 여건으로 인해 육아휴직 활용에 소극적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4580원...6.0% 인상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4320원보다 260원(6.0%)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13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야 한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산정을 둘러싸고 양측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결국 법정 기한(6월 29일)을 2주 넘긴 이날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을 전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는 등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올해 최저임금 미달률이 11.5%에 이르는 집 등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준 뒤 이달 초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한다.

제주도,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12일까지 아라동 등 3곳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오는 12일까지 제주시 아라동, 서귀포시 대륜동·표선면을 표본 지역으로 선정해 3개 지역의 장애인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욕구 파악을 위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단기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원이 현지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로 이뤄지며,

지역별 225가구를 표본 추출해 총 675가구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취업·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복지시설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 욕구 등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이다.

또 ▲장애수당과 장애인 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 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등도 조사대상이다.

백혈병소아암협 사랑나눔 행사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회는 6월 25일 제주시 브람스에서 백혈병 소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 일일행사를 가졌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호응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5억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영양팀, 위생팀, 기획운영팀 등 3개 팀 10명의 전문인력이 집단급식소의 식단과 표준조리법을 작성해 공급하고, 영양 및 식사지도,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등을 현장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95곳 6639명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이 기대되고 있다.



제주시, 홈페이지에 '행복장터' 개설

지활생산물 판매 확대 도모

제주시는 지활생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행복장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활생산물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자활사업을 통해 제조기술 등을 익혀 생산한 상품과 용역을 말한다.

지활생산물의 경우 영세한 사업규모와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유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주시가 6월말 시청 홈페이지에 지활생산물 '행복장터' 배너를 구축해 주민홍보와 광고 게재 지원에 나선 것.

행복장터에는 이어도지역 지활센터 등 4개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행복장터이야기

▲행복한생산물 ▲돌봄서비스 ▲문화서비스 ▲주거서비스 등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장터는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go.kr) 접속 후 좌측 하단 분야별 복지정보코너에 위치해 있다.

또 지활생산물은 지활생산물 쇼핑몰 해밀장터(www.jahwal.or.kr)나 굿스굿스(www.goods.goods.or.kr)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는 24개 사업단과 11개 공동체가 가사·간병사업, 홈클리닝 사업, 생태체험관광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올해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누구?

대상 1명 등 총 5명 선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온 '올해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선발한다.

제주도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올해의 사회복지 공무원' 선발대상을 오는 5일까지 접수받는 다.

'올해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2008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올해로 4번째를 맞고 있다.

대상은 도, 행정시, 읍·면·동 소속 5급 이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이다. 대상 1명과 분상 2명, 장려상 2명을 선

발하게 된다.

선발기준은 사회복지직렬은 5년 이상, 기타직렬은 1년 6월 이상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지역복지 기여도와 지역주민 만족도, 친절·자원봉사·이웃돕기 등 조직 내 귀감이 되고 고객만족 등에 크게 기여한 사회복지 공무원이다.

근무경력 등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와 인터넷 공개 여론수렴, 선발심의회 회의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시상은 오는 9월 7일에 열리는 제1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때 가질 예정이다.

한편 도와 행정시 및 읍면동에는 284명의 공무원이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 2011년 6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730,000	73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0
자원봉사후원	3,640,000	3,640,000
복지사업후원	630,000	642,000
푸드마켓후원	1,705,000	498,11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 랑방

(45)가족사랑상담소

“가정폭력 숨기지 말고 상담하세요”

가정폭력이 점차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피해 대상은 주로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이다. 최근 들어서는 아내가 남편을 폭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가족사랑상담소(소장 김명수)의 상담사례가 이를 입증해 준다.

가족사랑상담소의 지난해 하반기(7~12월) 상담 현황을 분석한 자료는 가정폭력의 피해유형과 이에 따른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을 의뢰한 이는 1498명으로 이 중 1129명이 상담소를 직접 찾아 자신의 고민을 털어냈다.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상담 내용은 가정폭력이 73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가족문제 467건, 부부갈등 136건, 성폭력 31건, 기타 12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 사례 922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69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 132건, 경제적 학대 90건, 성적 학대 34건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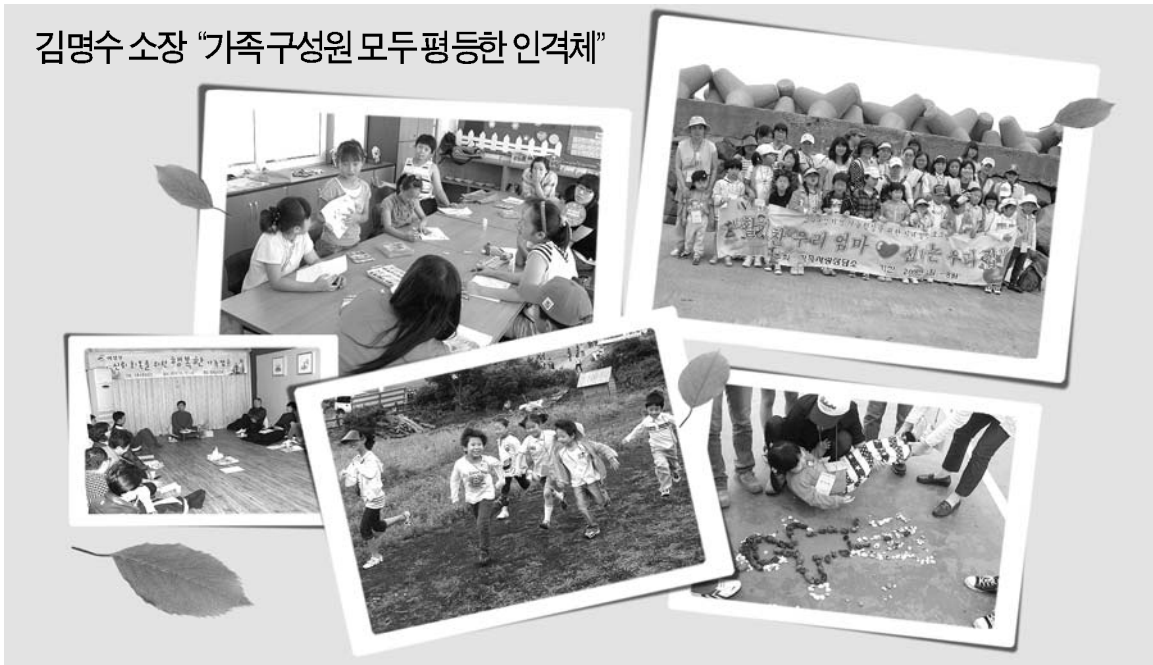
상담소는 이들 피해자 가운데 782명에게 심리·정서적 치료를 해 주고, 391명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등 지원사업을 펼쳤다.

김명수 소장은 “최근에는 매맞는 남편의 상담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는 여성 권익이 신장됐다는 증거가 아니라 거꾸로 감춰져 있던 가부장제의 모순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사랑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상담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1991년 1월 ‘가정폭력상담소’라는 명패를 달고 처음 문을 열었다. 지금의 명칭으로 바뀐 건 2004

김명수 소장 “가족구성원 모두 평등한 인격체”



년, ‘가정폭력’이란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었다.

가족사랑상담소는 가정폭력을 비롯해 부부갈등, 자녀문제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상담은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으로 나뉘어 이뤄진다. 또 가족상담 인력 양성을 위한 ‘가족상담사 자격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중독 아동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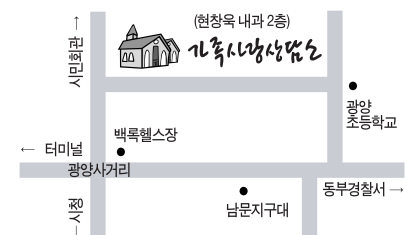
주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가정폭력 예방 부부교육 및 자녀교육, 미술치료 아카데미 교실, 가족치료 워크숍, 한국형 에니어그램 워크숍 등이 있다.

상담소는 개소 첫 해인 1999년 가정폭력사건 대상자 상담수탁기관으로 지정됐다. 법원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좋은 아버지 모임’이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 소장은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이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상하 관계가 아닌 평등한 인격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726-3277, 759-3277.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

19일까지 공모...연내 20곳 지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제3차 제주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공모한다. 오는 19일까지 제주도청 경제정책과에서 우편과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육성과

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과 회계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연구비 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사업개발비도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11곳, 예비사회적기업 15곳 등 26곳이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차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4곳(15명)을, 6월에는 2차로 8곳(56명)을 각각 지정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모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20곳을 지정, 육성할 계획이다.

주거개선 사회봉사활동 나선 유성건설

지역사회 건설회사가 주택개량 사회봉사활동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주)유성건설은 7월 7일 제주시 일도2동 저소득 장애인가정을 찾아 도배, 장판교체, 처마 보수작업 등 주택을 보수하는 사회봉사활동을 벌였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한 직원은 “건물을 짓는 회사에 다니면서 집을 고치는 봉사활동에 참가해 새로운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주)유성건설 오현봉 회장은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가정의 편안한 주거문화 향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유성건설은 연말까지 주택 10채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월드비전 2011 한마당축제

월드비전 제주가정개발센터(지부장 김관호)는 7월 9일 제주중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한마당축제’란 타이틀 아래 2011년 월드비전 한마당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에는 도내 저소득가정과 아동,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과 명랑운동회, 바비큐파티 등을 통해 서로 함께 뛰어놀며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서로가 남이 아닌 이웃이며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이겨나가는 소중한 관계임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미타요양원선봉기 후원·설치

한전KPS(주) 제주사업소 한마음봉사단은 6월 29일 미타요양원을 방문,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방마다 선봉기를 후원·설치하고 누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배선도 정비했다.

제주YMCA ‘7대자연경관 도전일기’ 활동



제주YMCA(사무총장 김태성)는 7월 9일 서귀포시 1호광장 등지에서 ‘세계7대자연경관 도전일기 2011 청소년 그린파워’를 실시해 투표참여 홍보, 게릴라콘서트, 즉석이벤트 등 다양한 거리홍보활동을 펼쳤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요!”

케어하우스, 중증장애인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노력과 일회성 개선으로는 불가능하다. 장애인 스스로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에 동기부여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 제주케어하우스(원장 김정현)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이용자들의 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키다’는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2차적인 장애발생의 예방,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자신의 건강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스스로 생활습관이

나 식습관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이용자들을 위한 극약 처방인 셈이다.

이 사업은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를 주기 위해 내·외 부강사를 활용해 이용자 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교육과 이용자들을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건강체육교실, 스트레스를 확 날리고 웃음으로써 건강을 되찾아주기 위한 웃음치료교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건강생활실천교육은 제주시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치아관리법, 비만관리의 중요성,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강원호 약사를 초빙해 약복용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매월 건강실천과 관련된 유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스스로 약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건강체육교실은 다양한 실내게임 등을 통해 운동을 멀리하고 움직임이 적었던 이용자들이 하여금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몸매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웃음치료교실은 웃음과 레크리에이션을 결합한 활동으로, 웃음으로 인한 엔돌핀 형성과 신체적 생리기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을 목표로 한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7월 28일에는 문영희 강사가 ‘건강박수의 비결’을 주제로 웃

음치료교실을 열었다. 입구서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는 사람들의 밝고 환한 웃음소리가 찌는 듯한 무더위를 날려버릴 기세다.

백영철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금씩 스스로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며 뿌듯함을 내비쳤다.

또 “이용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홍철 명예기자〉



일배움터 동아리활동 호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여기활동 프로그램인 승마활동, 목공예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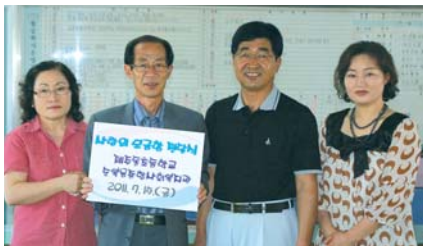
승마활동은 경직된 신체를 유연하게 발달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매우 유익하며, 목공예 활동은 각종 도구의 사용방법을 익히고 목재를 만지며 채색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배움터 가족들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식/마/당

동초교 순복음복지관에 모금함 전달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7월 15일 제주동초등학교(교장 장거수)와 연계해 사랑의 모금함 모금활동을 통해 조성된 모금액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4월부터 동초등학교 학생 880여명이 참여해 3개월간 모금활동이 진행됐으며, 모금액은 소외계층 청소년의 장학금과 독거노인 난방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아라복지관 아간보호아동영화 관람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제주은행의 후원을 받아 7월 8일 아동·청소년 아간보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들과 맛있는 간식(피자)을 먹으며 영화 ‘트랜스포머3’를 관람했다.

아간보호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제주은행은 간식·석식비 지원, 경제교육 등 아동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위탁아동 행복 나들이 진행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7월 3일 위탁아동 30여명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와 직원들과 함께 ‘기차타고 요리조리, 행복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나들이를 통해 아동들은 에코랜드와 셰프라인월드 등을 방문, 기차체험을 하고 세계 최대 주방기구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주시교육청 학교시설지원과 봉사활동



주사랑소규모요양원(원장 한영희)은 6월 25일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행정지원국장 유창삼)직원들의 정성을 담아 모은 돈으로 마련한 17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후원받았다.

이날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제조작업, 화단정리 등 환경정비 봉사활동도 펼쳤다.

제주종합복지관 ‘달려라 마미’ 운영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운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6일 싱글맘을 위한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달려라 마미’ 4회기를 제주시 외도봉에 위치한 월대천에서 진행했다.

저소득 모자기정이 안정적인 가정환경과 자조집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달려라 마미’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월 1회 운영된다.

도여성단체協, 이웃사랑 성금기탁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미선)는 7월 13일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16회 여성주간기념 ‘제주여성축제’ 행사에 참석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장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했다.

제주청소년배움터협의회 발족

1318해피존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1318해피존찬란한미래지역아동센터, 제주시청소년자활지원관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제주청소년배움터협의회’가 7월 15일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협의회는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활동공간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연구 및 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공동연수 등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회 전문가축구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회(회장 한행범) 소속 사회복지사(FC(회장 양창오)는 7월 17일 구좌종합운동장에서 제주지역 전문가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제1회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케이스 컨퍼런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7월 18일 제남아동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서귀포시 지역 아동양육시설종사자, 기타 사회복지관 및 치료 관련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제1회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케이스 컨퍼런스(Case Conference)를 실시했다.

이번에 처음 시도된 케이스 컨퍼런스는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했던 내용을 토대로 상담 및 치료사업 소개와 심리검사 이해, 아동

심리검사 사례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아동양육 시설종사자는 평소 상처받은 아동들과의 관계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비롯해 미술·음악·놀이·동작·심리운동·원예치료 등 다양한 심리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부터 치료사를 배치해 상담 및 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손뜻모아봉사회 창립 8주년

손뜻모아봉사회(회장 김여옥)는 7월 23일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펜션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8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회원간 우의와 친선을 다졌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 한림초 드림하이 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과 한림초등학교(교장 이광희)는 7월 14일 한림초등학교에서 '희망 톡(talk) 톡! 드림하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에 CAP(아동폭력예방)프로그램을 받은 6학년중 반별로 대표 희망메신저를 선발해 아동학대에 방심별인 노란리본을 교직원과 전교생에게 달아줬다.

캠페인에 참여한 희망메신저 양형은(6년) 어린이는 "내 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오늘을 계기로 친구나 동생 등 모두



빛누리실버연극단 '동행' 공연 보건소 등서 총 11회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이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연극문화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제4기 빛누리실버연극단'이 7월 20일 제주한라대학교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5개월여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빛누리실버연극단이 공연하는 '동행(작·연출 김광흠)'은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갈등과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3개월의 연습기간을 거쳤다.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제4기 빛누리실버연극단'은 도내 노인복지시설과 대학교, 보건소 등에서 총 11회 공연할 예정이다.

알림/마당

■ 청소년 인문학 여름캠프 참가

1318해피존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희영)를 이용하는 청소년 10여명은 제주시와 제주시참사리문화의집 주관으로 오는 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제주시 비자림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2011 청소년 인문학 여름캠프'에 참가한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 스스로가 당당한 삶의 주체자로 진정한 '나'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행사로 특강과 모둠토론 등을 통해 생각의 깊이를 넓혀나가고 리더십을 갖춘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애덕의집 자원봉사자모집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제주애덕의집은 시설 이용인들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남·여 목욕봉사와 지역사회 탐방 프로그램 지원이며, 만 18세 이상으로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후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724-8101~2.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된 해바라기 거점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미란)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5개 지역아동센터와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자원개발에 대한 강의, 지역사회 연계와 프로포절 작성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으며, 실무자들간 유대관계를 갖고 재움을 위한 비율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는 지난 4월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모델 정착을 위해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됐으며, 아동 발달단계 및 특성 등에 기초한 거점지역아동센터 역할과 차별화된 방과후 돌봄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동부지역에 위치한 우도·종달·우리하도·해바라기·김녕·신촌지역아동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도 전문화된 여가생활하고있어요"

송죽원, 요가프로그램 등 운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2011년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전문화된 여가생활하고 싶어요'라는 주제로 요가와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이어지며, 토끼요가원 고소영씨와 생활체육회 고양옥씨가 지도하고 있다.

송죽원 관계자는 "전문화된 특기생활을 발굴해 자기만족도를 높여 성취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비장애인처럼 완벽한 동작을 몸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내 소외계층과 사회복지기관을 찾아 공연을 펼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7월 4일에는 지적장애인의 날 기념 및 제13회 권익복지대회행사에 참가해 신나는 에어로빅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가 안전해 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번 행사는 아동들이 직접 권리주체로서 아동학대예방캠페인에 참여한 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스웨덴 정치와 복지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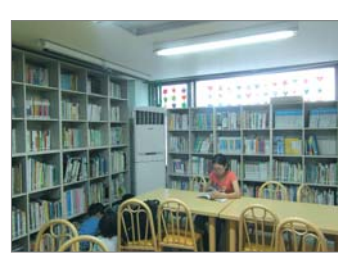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의원 박주희)은 7월 20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스웨덴 정치와 복지'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최원혁 남스톡홀름대 정치학과 교수는 제주도를 한국 민주주의의 메카로 만들 다양한 의견을 제언했다.

과학고자바끼 책꽂이기증

제주과학고등학교 자바12기 동아리는 자신들의 용돈을 아껴 모아 7월 17일 제일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에 책꽂이를 후원했다.

제일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사랑이 듬뿍 담긴 새로운 맞춤형 책꽂이가 만들어지다 보니



이전보다 독서하는 아이들이 부쩍 많아졌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7월 58 137 FOOD MARKET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7월 식품기탁자

-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77kg ▲서문식품=두부 384모 ▲김치원=김치 60kg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2l 900개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채소 120kg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생필품류 418개, 라면 80개 ▲여성어울림한미당=생필품류 394개 ▲아산재단=쌀 200kg ▲제주중등학교 28회 동창회=라면 1000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단호박 120kg ▲신영농조합=무말랭이 60kg ▲이든이네=멸치 3kg ▲현민철=라면 625개 ▲CMS후원자=205명 173만5000원

칼럼

나이든 자의 의무



이 선 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80년대와 90년대 초반 하더라도 우리 사회엔 지성인 또는 지식인이라던 말과 함께 기성세대가 사회에 대해 지녀야 할 책무에 대한 문화가 있었다. 하지만 IMF이후 사회가 급격히 경제중심의 사회로 변하면서 독서풍토 역시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자가 아닌 성공을 향한 자기개발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공유되고 소통하는 콘텐츠였던 지식이나 지성이라던 말 대신 가장 빠른 정보가 존중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자신의 강력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공과 오랜 생존을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식인의 시대적 책무'란 말은 이미 낡은 시대적 유물이 되어갔다.

대신 여기저기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였다. 이 말은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라는 뜻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만큼 사회에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지만 그 명예는 대체로 가지고 있는 부를 잃는 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일에 집중되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라고 한다.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어찌보다 더 창의적이고 더 발전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지식은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발전되고 진화된 이 지식과 정보를 함께 공유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유능한 지식을 가져도 골방에서 혼자만의 지식을 배양하는 것이라면 그 지식의 진화는 자아도취식의 창고저장용일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고 그들과 함께 자신이 몸담은 조직과 사회를 위해 발전시키기 위해 기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내가 감동을 갖고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안철수와 박경철이다.

이들은 바쁜 스케줄을 쪼개 전국 대학을 다니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함께 꿈꾸자'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른바 이 시대를 사는 지성인의 책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안철수는 벤처기업가, 교수생활에 이어 현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고 박경철 역시 의사이자 칼럼니스트, 투자 전문가, 방송인이다. 전문직으로서 바쁜 스케줄에도 그들은 왜 기어이 시간을 내 청년들을 만나는가? 그들은 희망을 뿌리기 위해서라고 짧게 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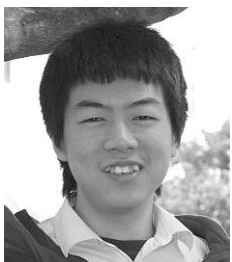
대학생들을 향해 받보다는 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엔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남들과 다른 삶을 꿈꾸라고 용기를 불어 넣어준다. 두 중년이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지켜보면서 이처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식인의 책무의식으로 지역의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을 향해 미래의 희망을 뿌리는 문화운동이 제주에서도 일어나야 한다고 여겨진다.

나이 50을 넘으면 자신의 오늘을 있게 해준 지역과 사회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가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낳는다.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은 이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뜨거운 여름날 오후, 50년 넘게 내가 살아 온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새삼 물어보는 게 부끄러워진다.

기고

'작은알프스' 기적의 여행



이 교 진(대정고등학교)

우리 천사의집에 있는 작은알프스 요들단이 스위스 인터라켄 축제에 초청을 받았다. 초청을 받아 기뻐했지만 우리가 그곳에 갈 비용이 턱없이 모자랐다. 그런데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기적같이 스위스에 갈 수 있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비행기에 오르고 16시간이 지나 스위스 취리히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강이 눈앞에 펼쳐지는 '코레아 호프'로 이동했다.

스위스에서 첫 날, 스위스식 아침식사를 끝내고 수도인 베른

시를 관광했다. 베른의 명물인 '곰동산' 등을 관광하는 동안 오히려 우리가 명물이 됐다. 우리 모두 요들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꽤 귀여웠나보다.

둘째날에는 철도청 후원으로 융푸라우에 갔다. 점심으로 컵라면을 먹었는데 우리나라 컵라면이 박스채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런데 뜨거운 물 한컵이 6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이어서 더욱 놀랐다. 저녁에는 어린이요들대회를 관람했다. 세째날엔 유럽선을 탔다. 시간이 늦어 마차를 먼저 타고 시내관광을 한 다음 유럽선을 탔다. 스위스는 내륙지방이지만 호수가 무려 1000개 이상이라고 했다. 우리는 유럽선 안에서 공연을 했다.

네째날에는 기차를 타고 룬으로 이동해 한서문화협회(한국&스위스 문화교류회)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교민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는 요들 공연을 선보이고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홍보와 천사의집 홍보를 했다. 천사의집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분들

도 있었다.

축제 폐막식에서는 뉴질랜드의 유명한 요들러와 러시아 요들러들과 함께 춤을 추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거리행렬에서 우리는 태극기를 흔들며 2km를 걸었다. 많은 분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니 우리가 국가대표가 된 느낌이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 받을 박수와 환호를 이곳에서 받았다고 말해 웃었다. 당시 우리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스위스에서 마지막 날, 취리히 시내에서 햄버거와 소시지를 먹고 천사의집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알프스' 기적의 여행을 마쳤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 아쉽지만 또 한번의 기적이 다시 올 거라 믿는다.

스위스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적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가 '기적의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들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고 앞으로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시론

광돌



김길용
수필가·시인

나는 제주방언 중에 광돌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오랜만에 심사관들의 정겹고 느긋한 삶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골마을 고샅이나 골목어귀에 자리 잡았던 작은 쉼터가 광돌이다. 널찍하고 기다란 돌을 가지런히 얹어놓아 잠시 쉬어가던 자락, 등 구부정한 노파나 허리 흰 영감이 몸을 기대는 곳이면, 등집진 아낙도 몸을 놓아 숨을 고르는 곳이다. 공원이나 도시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벤치 같은 것인데, 그런 딱딱한 시설물이 아니다.

광돌은 인정이 깃드는 곳이다. 집안이 대를 물려도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던 것이 광돌이다. 두셋이 앉아 살아가는 얘기들이 오가는 곳이면 걱정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정이 스며들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던 사랑방 같은 공간이다. 요즘엔 시골에도 그전처럼 쉼팡이 흔치 않다. 헝고 뜰어고치는 바람에 자취를 감추고 있어 안타깝다.

한 소녀는 소아마비로 파행의 걸음을 걷는다. 알맞은 동네 남자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으며 컸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뼈빠지게 걷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그게 바로 너라 하지 않는가. 그때부터 장애를 의식하면서 움츠러진 마음이 나이가 들어서도 쉬이 펴지지 않았다. 과자 사러 가게에 드나드는 것마저 눈치 보이고 고통스러웠다. 집 맞은편 가게 옆에 광돌이 있고, 거기 앉아 있던 동네 할머니들의, 등 뒤를 따라오던 얘기,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어린 것이 불쌍해서, 가여워서..." 자신을 향한 어른들의 타령이 넋더리가 나게 싫었던 소녀.

소녀는 어른이 되면서 글쓰기를 좋아했다. 주인공은 여류수필가 홍양진님. 40대 초반인 그녀는 지금도 소녀처럼 얼굴이 청순하다. 초롱한 눈에 낮빛이 뽀얗다. 흔히 장애인에게 드리워지는 그늘을 찾아볼 수가 없다. 수필 신인상에 추천하면서 오히려 내가 뿌듯할 정도로 그녀의 작품은 유난히 좋다. 서정적 울림이 있을 뿐 장애의 어둡고 음습한 정서가 없다.

작년 전국장애인문화작품공모에서 산문부 최우수작에 입상했다. 작품이 출중한 수작인데 제목이 '광돌'이다. 장애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수필을 통해 섬세하게 풀어내고 있어 읽는 이의 심금을 울린다.

'이제야철이 든 걸까. 할머니들이 윙크로 나를 향한 관심은 불편함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을 내어준 나눔이었다. 그분들의 가슴속엔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광돌 하나씩 마련해두고 있었던 게 아닐까.'

누군가의 시선도 따뜻한 맘으로 수용하면 장애도 나눌 수 있는 아픔이었다. 나는 여태껏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혼자 고집스럽게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살았다. 나를 보는 시선을 감당할 수 없어 내 안에 담을 쌓기만 했다. 그게 운명처럼 주어진 장애인의 삶이라 생각했다. 마음의 장애도 앓고 있었다.

이제는 따뜻한 시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 나를 가뒀던 담들을 하나씩 허물어야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광돌 하나 만들테다. (홍양진의 '광돌'에서)

상금이 300만 원이란다. 우선 시어머니에게, 다음으로 친정어머니에게 나눠드렸으며 시원스레 웃는 그녀는 보기 드문 효부요 효녀다.

열심히 수필을 쓰고 있다. 인생의 무늬가 그려 있고 그녀다운 해석이 있어 수필이 맛깔스럽고 진지하다. 통찰과 사유의 깊이만큼 깔끔하고 그윽하다. 수필을 쓰면서 자신을 정화하고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녀는 어느새 장애인들의 광돌이 돼 있다.

성년후견제도 도입 · 과제 부모교육

“피후견인 자기결정권 최대한 존중해야”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 부모교육이 7월 8일 서울시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열렸다.

본지는 이날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향후 과제, 부모입장에서 바라보는 성년후견제도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와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석원 부회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 부모교육이 7월 8일 서울시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우주형 교수가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정신적 장애인 보호 · 사회통합 필요성 대두 재산권 등 권리보호 · 사회복지보장 기능 수행

우주형 교수는 “현대는 선진적 · 후천적 장애인들이 증가해 정신적 장애인과 같은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람에 대한 보호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현행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도에서는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로 한정치산자 · 금지치산자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 제도들은 용어 자체도 차별적인 의미가 강하고 또한 본인과 가족의 사회적 낙인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장애의 정도가 다양하지만 정신적 장애인 등에 대해 금지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만을 인정해 일률적이고 광범위하게 행위능력을 박탈 · 제한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정신능력 및 보호의 정도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 교수는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성년후견제가 재산권 등의 권리보호와 신상보호 등의 사회복지 보장이라는 이중

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현행 금지치산 · 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 금지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성년후견(제9조) 및 한정후견(제12조)제도로 리모델링하고, 특정후견(제14조의2)과 임의후견(제959조의14)제도 도입.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피성년후견인)은 그의 법률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와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10조)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법률행위에 한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외의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동의를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없이 했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본인(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2항, 제12조제2항, 제959조제4항, 제959조의3제2항

등)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제14조의2 제2항)

▲특정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이 기간 또는 범위를 특정하여 피후견인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후견제도로 도입.(제14조의2, 제959조의11)

▲성년후견인의 경우 복수선임도 가능케 했으며, 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감독인은 법인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후견의 내실화와 전문화 지향.(제930조, 제940조의7)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40조의3제1항, 제940조의4제1항, 제959조의5제1항, 제959조의10제1항) 단 후견계약에서는 가정법원에서의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복수의 후견감독인 선임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제959조의14제3항, 제959조의15제4항)

▲후견인의 임무와 관련하여는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단 신상에 관한 결정에서는 본인의 상태가 허락하는 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을 우선으로 규정하고 있다.(제947조의2) 따라서 재산적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사항도 후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의식 불명 등으로 본인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후견인이 개입하며, 특히 격리치료 등 본인의 신체,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임의후견인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석원 부회장은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후견인 신고에 따른 수수료, 감정료 등의 비용과 후견인, 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 지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재산관리를 주목적으로

성년후견제 많이 이용되도록 제도화 중요

재산관리 · 신상보호 목적 이용구분 필요

후견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제도를 신설해 법정후견에 우선하도록 하면서, 후견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만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고 있다.(제959조의14 등)

우 교수는 “오늘날 성년후견제는 점점 피후견인 본인인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주면서 인권과 복지적 서비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 금지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실제로 많이 이용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어떠한 실익이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신상보호를 주목적으로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연고자 등 민법상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없는 이들에 대해 정부의 보증 하에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 선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예산의 확보 ▲시설장의 후견금지 ▲후견 내용의 구체화 및 홍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부회장은 “어떻게 만들어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권이,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2011 아름다운 나눔 & 기부 UCC 공모전



우리 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 내 나눔과 기부문화를 조성·확산시키고자 아름다운'나눔 & 기부'에 대한 UCC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p>공모분야 창작 UCC</p>	<p>작품규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 5분 이내 ● 파일형식 : WMV, AVI, SWF, MPEG 등 ● 해상도 : 640*480 pixel 이상
<p>응모자격</p> <p>나눔과 기부문화 조성에 관심있는 도민(일반 및 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단체별 응모 가능(응모 작품 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인(팀)의 작품 다수가 시상 대상이 될 경우 가장 우수한 1개 작품에 한해 시상) ● 외부 공모사업 입상작은 응모할 수 없음 	<p>시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상 : 1인(팀), 1,000천원 ● 우수상 : 1인(팀), 500천원 ● 장려상 : 3인(팀), 300천원 <p>*심사결과 우수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음</p>
<p>주 제</p> <p>'나눔과 기부'문화를 조성·확산시킬 수 있는 작품</p>	<p>접수기간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기간: 2011. 9. 30(금)한 ● 제출방법: 공모사업 신청서 및 파일 1부 ● 제출방법: 웹하드 제출 (ID: ucc7021, PASSWORD: 7021)
<p>내 용</p> <p>생활속에서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모습 및 나눔과 기부 활동에 동참을 유도하는 내용</p>	<p>주 관</p> <p>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의 소리</p> <p>*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담당자 (담당: 윤숙이 팀장 ☎ (064)702-3784) 에게 문의바랍니다</p>
<p>응모형식</p> <p>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 제작형식 자유</p>	

